

GS칼텍스, 고도화로 수익성 반전...

제4 중질유분해설비 완공 임박 ... 고도화 비율 35%로 정유4사 선두

GS칼텍스(대표 허동수)가 2조원을 투입한 고도화설비인 4번째 중질유 분해시설 완공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정유부문에서 경쟁기업들에 비해 유독 나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도화설비 확충을 계기로 반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GS칼텍스는 4월 여수 제2공장에 하루 정제능력 5만3000배럴의 고도화설비를 준공할 예정이다.

고도화설비가 들어서면 GS칼텍스는 고도화 비율이 원유 정제능력 기준으로 현재 28.3%에서 35.3%로 높아져 국내 정유4사 가운데 선두로 부상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전망 분석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고도화설비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전 가동이 여의치 않은 일본 정유기업들이 발전용 벙커C유 생산을 늘리면서 국제가격이 하락해 정제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LIG투자증권 박영훈 연구원은 “지난 2년 동안 벙커C유 가격 강세는 일본이 발전용 소비를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일본이 자체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은 많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박영훈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유기업들의 일간 기준 벙커C유 생산량은 원전사고 이전인 2010년 37만8000배럴에서 최근에는 48만배럴로 27% 급증했다.

하루 평균 벙커C유 수입량은 2010년 5만1000배럴에서 2012년 15만8000배럴로 크게 늘었으나 2013년 들어서는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투자 대비 수익이 기대만큼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고도화설비 투자가 늘면서 벙커C유와 원유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고 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시장이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가 관건인데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면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S-Oil이 1990년대 최초로 고도화설비에 투자할 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결국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고도화 도미노>를 촉발한 것을 예로 들며 탄탄한 수익구조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8>